

연구환경과 개인특성이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행정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우 양 호**
홍 미 영***

국문요약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학문과 지식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한국의 행정학에서도 우수한 연구자의 존재와 생산적 연구활동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이 연구의 주제는 한국의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처해 있는 연구환경과 개인적 특성에 근거하여 연구생산성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밝혀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행정학을 대상으로 투입과 산출의 생산성 개념을 탐색적으로 도입하여 그동안 도외시되어 온 연구생산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학계의 나아갈 방향과 학술연구정책 상의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연구범위는 전국 대학의 행정학 연구자 1,740명의 최근 10년 기간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행정학 연구자들의 개인특성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약 8:2의 비율이었고, 평균 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직급은 정교수와 비정규교수가 많았고, 조교수와 부교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위는 외국박사가 약간 많았고, 연구동기는 자기만족 및 효능감, 학문적 성취감, 주위의 인정 등 내적 유인이 많았다. 연구환경에서는 대부분 4년제 대학에 소속되어 학부와 대학원수업을 맡고 있었고, 교내와 외부에서 보직이나 업무를 맡고 있었다. 둘째,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은 산술적으로 연간 1인당 평균 1.37편이었으며, 연구실적물 등급의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은 2.68편으로 나타났다. 연구생산성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개인특성 요소에 따라 변화량의 차이가 있었다. 셋째, 행정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구비, 대학특성, 봉사부담, 연령, 학위 등의 5가지 요인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발견들은 향후 행정학 학계와 연구자 개인은 물론 정부와 대학의 학술진흥정책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었다.

주제어: 연구환경, 개인특성, 연구생산성, 연구업적, 행정학

I. 서론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researchers)'의 역할은 기존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시대적으로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였다. 고등교육의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2925302).

** 제1저자(주저자)

*** 교신저자(공동저자)

산실인 대학에서조차도 이미 교육은 이루어진 지식의 전달, 습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지식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우수한 연구자의 필요성과 생산적 연구활동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강조되고 있다. 정부도 연구자 집단의 연구역량과 연구활동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됨을 인식하여, 여러 유형의 연구자 지원 및 학술진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생산성에 대한 관념(concept)을 이론 및 실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 해외의 경우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비가 곧 높은 연구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의외의 평가가 나와 있다(교육부, 2016; 한국연구재단, 2017).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행정학을 대상으로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투입과 산출에 관한 '생산성(productivity)' 개념을 시론적으로 도입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에서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생산성이라는 계량화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되었고, 생산성 개념을 연구활동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였다. 이에 아직까지 한국의 사회과학,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생산성(research productivity)'에 관한 개념적 논의 및 경험적 검증 작업은 그리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김태일·남궁근, 2003; 한동성·장덕희·한승환·양정모, 2008; 권해수, 2009; 우양호·고경동, 2015). 그나마 있던 연구생산성에 대한 연구마저도 자연과학이나 공학 등 특정분야의 대학 교수들에 국한됨을 볼 때, 사회과학의 대표적 학문인 행정학과 그 연구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자의 특성 및 연구환경, 연구생산성의 수준을 분석하고,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는 데 있다. 즉 행정학에서 연구자들의 특성과 연구수행 환경 및 연구생산성의 수준을 측정해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 연구성과물에 대한 양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연구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연구생산성의 향상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실증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이나 학과는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조정하고 연구년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든 현재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합리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¹⁾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세부적인 연구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이 처해 있는 연구환경과 개인

1) 특히 행정학에서 대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측정 결과는 정책적으로 여러 근거와 동기를 만들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업적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의 연구업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대학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연구활동 수준 향상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생산성을 측정하여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적정 연구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확인함으로써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 개인의 업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전체적인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대학의 고유영역인 연구활동에 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가진 연구활동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도 전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한승환·권기석, 2009).

적 배경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행정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행정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는 연구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넷째,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향후 한국 행정학 연구풍토 및 학술진흥정책에 주는 시사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I. 연구생산성과 그 연관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연구자와 연구생산성의 의미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행정학 분야의 연구자 유형은 대학의 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기타 연구자 신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제도적, 학술진흥정책 상의 분류와도 일치한다(교육부, 2016; 한국연구재단, 2017). 교수는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에 현직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연구원은 정부산하 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기타 연구자 신분은 제도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비정규 강사 및 비정규 연구직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교육부, 2016; 한국연구재단, 2017). 그러나 이 연구는 대학에 소속된 정규 및 비정규 교수 중심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연구활동이 대학 이외의 연구전문조직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학 분야에서 박사급 연구인력의 약 80% 정도가 대학에서 정규 교수 및 비정규 교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연구재단, 2017).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행정학의 연구역량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 중심의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생산성의 광의적 의미는 “연구활동을 위한 제반 투입(inputs)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산출물(outputs)”을 지칭한다. 협의적 의미에서의 연구생산성(research productivity)은 “투입의 결과에 따라 산출된 학문적 결과물의 단위”를 지칭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행정학의 연구생산성을 “연구활동 투입의 결과로 나타난 저서·논문 형태의 결과물(publish)”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연구생산성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작성되고, 이것이 학계에 수용되고, 평가되고, 알려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Bland, et. al, 2006; Dean, Lowry & Humphreys, 2010; Abouchdid & Abdelnour, 2015). 연구자는 책이나 논문발표의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와 새로운 발견에 대한 의사교환과 상호교류를 할 수 있으며, 그 신뢰성(reliability)도 증명하게 된다. 또한 연구결과 기여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연구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받게 된다. 나아가 연구자의 승진, 연구비 지원,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도 책이나 논문, 기타 업적물의 발표를 통해서 가능하다(Streuly & Maranto, 1994; Tower, Plummer & Ridgewell, 2011; Leisyte, 2016).

연구생산성(research productivity)은 연구자로서의 책무와 자기책임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연

구는 지식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가는 지적 탐구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책무는 연구를 통해 지식을 끊임 없이 반성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고등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Roy, et. al, 2006; Hardre, et. al, 2011). 연구자가 행하는 연구의 내용에는 각종 저서를 포함한 저작물을 출판하는 것,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등에서 구두로 발표하는 것, 예술분야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대학에서 교수나 연구원 등의 연구책무는 지적 호기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지식의 창출과 전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Hollister & Schroeder, 2015; Aithal, 2016).

해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본질적 사명을 연구와 학문적 기여로 판단하고 있다(Perry, et. al, 2000; Sax, et. al, 2002; Crosta & Packman, 2005). 즉 연구생산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분야별로 생겼고,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회계학, 심리학 등에서 주요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학 등의 학제간 연구분야에서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외연구에서는 생산적인 연구자를 “자기 주도적(self-directed)이면서 인류의 중요한 현안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되,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Nurhudatiana & Anggraeni, 2015; Harle, Vest & Menachemi, 2016).

2. 연구생산성을 측정하는 방식

기존 연구에 근거해 볼 때, 연구생산성의 측정방법은 연구실적물(research products)을 대상으로 이것에 의한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Schiele, 1991; Conley, et. al, 2013). 연구실적물의 평가 및 측정은 크게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대표되는 연구생산성의 계량적인 측정방법은 단순히 연구실적물의 숫자를 헤아리는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는 추세에 있으며, 비중을 설정하여 측정하는 방법(weighted measures)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계량적 비중평가에서는 비중산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논의되고 있다(Rawls, 2015; Hološko & Barner, 2016; Ramkumar, Savithri & Narayanasamy, 2016).

첫째, 학술논문의 경우에 학술지의 질적 수준 또는 명성이나 중요성을 기준으로 비중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저서나 역서의 경우에 원저술이나 아니냐를 따져서 그것을 기준으로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저서이든 학술지 논문이든 상관없이 그것의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중을 설정하여 연구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학문영역의 성격에 따라 저서와 논문의 비중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Wichian, Wongwanich & Bowarnkitiwong, 2009; Svider, et. al, 2013; Alrahlah, et. al, 2016).

질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측정방법으로는 첫째, 그 분야의 전문가나 동료학자로 하여금 특정 성

과물의 우수성을 판별·평가하게 하는 방법(peer review)이 있다. 둘째, 연구자의 저서나 논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정받고 있느냐를 조사하여 그 연구업적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다른 사람에 의한 인정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 의한 인용(citation)이나 참고문헌(reference)으로 나타남을 전제한다(Bland, et. al, 2006; Dean, Lowry & Humphreys, 2010; Abouchedid & Abdelnour, 2015). 그러나 질적 방법의 동료평가에서는 평가자가 전공분야의 특성과 그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업적이 얼마나 이루어져 왔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신진학자들의 연구논문이나 저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에도 일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Hunter & Leahey, 2010; Hesli & Lee, 2011; Webber, 2012; Eloy, et. al, 2013).

결국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의 측정방법에 있어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객관화된 정량적 평가, 즉 양적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Perry, et. al, 2000; Sax, et. al, 2002; Crosta & Packman, 2005). 여기에는 학술논문과 저서 위주의 연구실적물을 원자료(raw data)로 분석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즉 연구논문과 저서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준과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면서도, 결과물에 대한 가중치나 점수를 차별적으로 부여하여 최대한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 연구도 실증분석을 위해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타당화된 측정방식을 이론적으로 원용하고자 한다.

3. 연구환경과 연구생산성의 관계

연구환경은 연구수행과 관련된 여러 환경적 조건을 말한다.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환경에는 개인의 연구여건, 수업부담, 보직부담, 봉사부담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연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권리와 의무, 능력개발, 근무조건, 사회심리학적 특성 등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연구생산성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Crosta & Packman, 2005; Streuly & Maranto, 1994; Tower, Plummer & Ridgewell, 2011; Leisyte, 2016). 이러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연구생산성은 연구자 개인의 인적(personality) 측면만 따질 것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많다. 변수의 상정은 각기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대학 연구자의 연구환경 요인에는 소속대학, 연구비, 강의부담, 행정부담, 정년보장, 연구년, 대학원생 등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연구자를 둘러싼 연구환경 변수와 연구생산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중심대학 연구자는 교육중심대학 연구자보다 연구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Wichian, Wongwanich & Bowarnkitiwong, 2009; Svider, et. al, 2013; Alrahlah, et. al, 2016).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구역량과 그 생산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행정학 연구자는 소속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책무수행도 요구받게 된다. 현재 한국의 대학체제로 볼 때 2년제 전문대학은 강의중심대학이고, 4년제 종합대학은 상대적으로 연구를 중요시하고

있다. 예컨대, 대학의 교수에게 기대되고 있는 책무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과 새로운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며, 또한 이 두 가지 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하는 일이다. 교육적 책무와 연구적 책무는 교수들의 시간과 능력, 대학의 재정여건 또는 시설이라든가, 소속된 대학의 특성 등의 이유로 인해 경쟁적 관계에 놓이기 쉽다. 그래서 근래에 대학별로 연구자에 대한 각종의 연구장려금이나 학술연구실적 인센티브 등이 새로 생긴 경우가 예전보다 늘었다(교육부, 2016). 교육중심대학은 강의나 실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육업적이 인사에 비중 있게 반영되고, 교과목과 시수가 많은 편이다. 2년제 대학은 연구보다는 초과강의수당 등의 유인책이 발달된 반면, 4년제 대학은 수업부담이 적고 연구업적이 중요시되며 연구비 수혜와 연구기회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쉽다.²⁾

둘째, 수업부담이 없거나 덜한 연구자는 수업이 많은 연구자 보다 연구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다(Hunter & Leahey, 2010; Hesli & Lee, 2011; Webber, 2012; Eloy, et. al, 2013). 대학에서 연구활동과 상대적 개념인 수업부담은 수업계획준비, 자료구비 및 교재연구, 시험과 과제물, 기타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다. 강의부담을 외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수업의 시수와 학생의 숫자 등이다. 또한 학생의 신분과 과목의 난이도는 수업부담의 질적 요인이다. 대학의 연구자에게 수업시간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연구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구생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기존의 다수 관련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연구생산성과 수업효과성(teaching effectiveness)의 관계에서 연구와 수업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정(+)의 관계보다는 부(-)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봉사의 부담이 덜한 연구자는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연구자 보다 연구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다(Mamiseishvili & Rosser, 2010; Jung, 2012; Walker, Fleishman & Stephenson, 2013). 이러한 봉사에는 대학이나 외부에서 맡는 보직과 당연직에 따르는 사무, 각종 노력봉사도 포함된다. 봉사(services)는 대학 혹은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직위에 임명되어, 연구 이외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적, 사무적 성격의 보직업무는 대학의 기본적인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들은 교수나 연구자들에게 보직을 주거나 임명직책을 수행하도록 하면, 그것을 일종의 봉사부담으로 인정하고 수업시간 경감, 수당지급 등의 보상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들은 외부의 각종 자문역이나 위원회 등의 봉사도 맡는 경우도 빈번하다.

넷째,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자는 그렇지 못한 연구자 보다 연구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Chen, et. al, 2015; Brew, et. al, 2016).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경험적으로 증

2) 최근에 미국에서는 대학의 재직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생산성과 학문적 계통성(academic lineage)을 분석한 결과들이 흥미롭다(Svider, et. al, 2013; Alrahlah, et. al, 2016). 이들 연구에서 일부 대학의 명성과 우수성은 곧 연구자의 확보율 및 박사논문의 수와 비례하였다. 그리고 신입교수의 진입비율도 우수한 박사를 양성하는 명망 있는 일부대학에 치중된 것으로 드러나, 기존 연구자의 우수성이 신진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은 개인의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속학계의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유명한 연구자들이 많고 우수한 학생이 많이 입학하는 대학일수록 연구성과가 높다는 것이 규명되기도 하였다.

명된 바 있다(김태일·남궁근, 2003; 한동성·장덕희·한승환·양정모, 2008; 한승환·권기석, 2009; 우양호·고경동, 2015). 연구생산성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연구비를 통해 연구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비 획득을 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나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연구비가 연구생산성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구비 지원유형에는 크게 교내연구비와 외부연구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경쟁성이나 지원규모에서 정부나 민간의 외부연구비가 연구생산성 제고에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째, 연구년을 지냈거나 받은 연구자는 그렇지 못한 연구자 보다 연구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다(Nurhudatiana & Anggraeni, 2015; Harle, Vest & Menachemi, 2016; Smeltzer, et. al, 2016). 연구년이라는 용어는 종래에 안식년과 혼용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년으로 명칭이 거의 일원화된 것은 많은 대학에서 이 기간에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다수 연구자들은 이 제도를 연구를 수행하는 데 실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연구재단, 2017). 현재 대학의 연구년이나 안식년 제도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상황이 유사하다. 이 기간은 일단 개인의 역량개발과 연구생산성 향상에 있어 중요하다. 연구자는 연구년을 단순한 휴식이나 재충전의 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선진문물과 학문적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국에 나가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년은 새로운 학문적 동향을 접하고, 연구에 투자하는 절대시간을 부여하며, 연구의 욕을 전반적으로 고취시켜 연구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³⁾

4. 개인특성과 연구생산성의 관계

연구생산성은 연구환경이나 주변 여건 외에도 연구자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연구생산성이 개인의 인적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주변 환경이 동일하더라도 연구생산성이 차이가 나타난 여러 결과들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자의 개인특성 요인에는 연령, 성별, 학위, 동기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연구자의 개인특성 변수와 연구생산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령(age)이라는 변수는 연구자의 개인여건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Chen, et. al, 2015; Brew, et. al, 2016). 기존 연구에서 연구생산성 예측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연구자의 연령 혹은 나이 변수는 그 분석결과가 크게

3)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미국 국가연구위원회의 패널자료(National Research Council data)를 이용하여 계량적인 연구생산성을 분석하였는데, 생물과학, 기술과학, 물리학과 수학, 사회 및 행동과학 등 4개 분야를 분석하여 연구환경의 유의성을 밝혀내었다. 특히 신진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각된 통제, 연령, 성, 대학특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통제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연령과 소속기관의 특성은 연구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높은 연구생산성은 박사과정생의 배출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수준과 비례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Schiele, 1991; Dean, Lowry & Humphreys, 2010; Webber, 2012).

네 가지 유형으로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연구자의 연령이 높으면 연구생산성이 감소한다는 반비례 학설(inverse proportion type), 연령이 높으면 연구생산성도 증가한다는 비례 학설(direct proportion type),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정시점까지는 연구생산성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한다는 반원형 학설(semicircle type),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구생산성이 여러 시점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는 말안장형 학설(saddle type) 등이다(Schiele, 1991; Conley, et. al, 2013).⁴⁾

둘째, 직급은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을 대리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직급이 낮은 연구자가 오히려 연구생산성이 높다는 보고가 많이 되어 있다(Mamiseishvili & Rosser, 2010; Jung, 2012; Walker, Fleishman & Stephenson, 2013). 현재 정규 교수의 경우에 그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구분된다. 대다수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행정학 분야에서 조교수가 정교수보다 연구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비정규 교수의 경우는 강사를 포함하여 강의교수, 연구교수, 계약교수, 겸임교수, 산학교수 등의 이름으로 대학에 채용되어 있다. 연령과 직급은 서로 비례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사회에서 연구자에 대한 채용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직급이 낮아도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자가 상당수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또한 재직기간을 변수로 삼는 연구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직급은 재직기간과는 비례하기 때문에 직급 한가지 변수만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연구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따른 연구생산성 차이에 근거하는 변수이다. 이는 남성이 연구를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여성이 더 연구를 많이 하는가의 문제이다. 성별은 연구생산성을 설명함에 있어 연령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변수이다. 즉 연구생산성에 대한 영향변수로서의 성별의 의미는 동일한 조건에서 남녀의 연구생산성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뜻한다. 물론 여기에도 학설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Rawls, 2015; Holosko & Barner, 2016; Ramkumar, Savithri & Narayanasamy, 2016). 먼저 성별에 따라 연구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구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로 연구생산성은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없다는 학설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연구생산성이 성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른 원인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결국 어느 쪽의 학설이 더 강한지는 이 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된다.

넷째, 연구자의 학위사항은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학설이 보고되어 있다(Nurhudatiana & Anggraeni, 2015; Harle, Vest & Menachemi, 2016; Smeltzer, et. al, 2016). 행정학에서 연구자의 박사학위는 국내박사와 외국박사로 구분된다. 학위사항(academic degree) 혹은 박사학위가 연구활동이나 연구생산성에 중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대학원에서의 수학과 학위 취득과정이 어떠한지나 따라 개인의 지식뿐만 아니라 학문을 접하는 가치관, 연구태도 등이 좌

4) 연령에 따른 연구생산성의 변화는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 학이나 공학 전공 연구자의 경우,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급속한 학문의 진보를 따라갈 수 없으므로 연구생산성이 감소하게 되지만,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 연구자의 경우 또 다른 유형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과 연구생산성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Streuly & Maranto, 1994; Tower, Plummer & Ridgewell, 2011; Leisyte, 2016).

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학계에서 신진연구자 상당수는 외국박사로 집계되고 있고, 기존 학계에 있는 기성 교수나 연구자의 상당수도 외국박사가 많다. 실제적으로도 미국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한국의 행정학은 기성 연구자들에 대한 학위취득 유형에 따라 연구생산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동기화는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요소이다. 연구활동에 있어서 개인적 동기화(motivation) 현상은 중요한데, 이는 크게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Roy, et. al, 2006; Hardre, et. al, 2011; Hollister & Schroeder, 2015; Aithal, 2016). 외적동기는 채용(정규직이나 정년), 승진, 보수나 금전적 인센티브 등의 외재적 보상(extrinsic rewards)과 관련된다. 내적 동기는 만족감과 자기효능감, 학문적 성취감, 주위의 인정 등의 내재적 보상(intrinsic rewards)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들에게 있어 외형적인 동기도 중요하지만 주로 내적 동기가 연구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기존 연구들의 중론이다. 이는 제도권의 전문연구자라는 직업이 경제적 안정과 외형적 보상에 있어 다른 직종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진연구자와 비정규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생산성에 있어 외적 보상에 대한 동기화가 내적 동기 보다 크다는 결론도 설문조사에 의해 신빙성 있게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외적 혹은 내적 형태에 상관없이, 연구자의 심리적 동기는 연구생산성과 적지 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허용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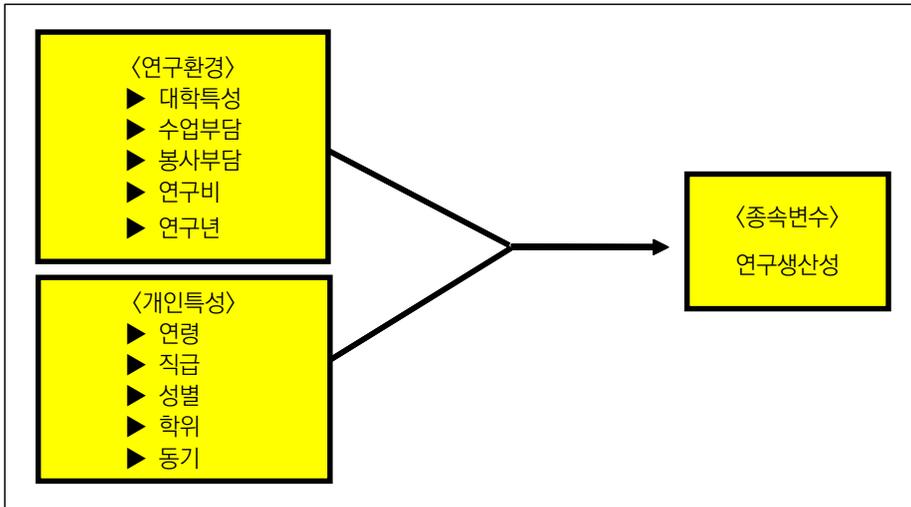
Ⅲ. 연구모형과 조사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

지금까지 연구환경과 개인특성이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와 그 요인에 관한 분석을 하기 위한 선행과정으로 관련 문헌 및 각 영향변인들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생산성에 대한 연구환경과 개인특성의 효과는 비교적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만들어 본다. 우선 이론적 논의에 따라서 연구생산성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구환경 변수는 대학특성, 수업부담, 봉사부담, 연구비, 연구년이 있었다. 반면에 연구생산성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인특성 변수는 연령, 직급, 성별, 학위, 동기 등이었다. 그러므로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앞에서 말한 총 10가지의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최근 연구에서 외재적 및 내재적 보상(extrinsic and the intrinsic rewards)에 부합하여 비정규직 교수는 보수와 직위 등의 외재적 동기가 강하고 정규직 교수는 만족감과 학문적 성취감 등 내재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연구생산성은 직급이나 연구시간과는 긍정적 상관성을 가지며, 임용기간과는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Hollister & Schroeder, 2015; Aithal, 2016).

〈그림 1〉 연구모형



이론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각 변수의 가설과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이용한 분석방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먼저 연구환경에서 대학특성은 4년제 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2년제 대학에 있는 연구자보다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수업부담과 봉사부담에서는 각각 이에 대한 부담이 낮은 연구자가 부담이 높은 연구자보다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비는 외부나 교내에서 수주가 있는 연구자가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년에는 이를 수혜하여 지낸 연구자가 지내지 못한 연구자보다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했다. 개인특성에서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직급도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은 높을 것으로 가정했다. 성별로 보면 대체로 남성연구자가 여성연구자보다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했다. 학위는 국내박사보다는 외국박사가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했다. 동기는 연구로 인한 채용, 승진, 보수 등의 외적유인을 가진 연구자보다는 만족 및 효능감, 성취감, 인정 등의 내적 유인을 가진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가설들은 모두 앞선 이론적 논의와 문헌보고를 토대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2. 조사설계 및 분석자료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측정에 있어, 계량적인 측정방법과 질적인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양적 척도인 논문의 수와 질적 척도인 인용빈도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연구생산성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들은 연구자의 업적을 재는 척도로서 양적 척도인 발행논문과 책의 수, 즉 실적물의 숫자가 여타의 다른 척도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생산성을 측정하고자 하며, 계량적인 측정방법 가운데서도 학문영역에 따라 논문과 저서의 비중이 다름을 고려하여 논문의 연구생산성, 저서의 연구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것이다.

과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에 대한 각종 연구지원사업에서 연구생산성과 업적을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즉 국내의 경우 학술지평가사업 등을 통해 학술지의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행정학에서는 전국의 학회와 대학들의 협조로 학술지평가체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업적이 게재되는 학술지의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현재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국내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과 해외의 사회과학인용색인(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즉 여기에 등재된 행정학 분야 학술지 논문을 모두 포괄하여 연구생산성을 측정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2017)의 한국연구자정보(KRI: Korea Research Information)의 데이터와 함께 추가적으로 한국행정학회(2017) 및 한국정책학회(2017)의 회원명부 및 주소록을 전주소사 방식으로 풀어 데이터 셋(data set)을 작성하였다.

연구생산성의 분석기간은 최근 10년(t년: 2007년부터 2016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생산성을 집계한 조사시점은 익년도(t+1년)로 계산되므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가 된다. 연구생산성은 연구실적물의 숫자를 의미하는 양적 수준의 평균에 5등급으로 나눈 질적 가중치(5점-1점)를 합산한 가중평균값으로 구분하여 산정되었다. 국제학술지(SSCI)는 5점, 등재학술지는 4점, 등재후보학술지는 3점, 기타학술지는 2점, 교내논문집은 1점으로 산정하였다. 저서나 역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에 근거하여 등재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게 산정하였다. 박사학위논문, 학술대회나 세미나 발표문, 기타 원고는 제외하였고, 등재(후보)학술지의 경우 선정이전 게재실적의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으며, 중복실적(학술지와 단행본)의 경우는 등급이 더 높은 것만 산정을 하였다. 개인 저서나 단행본의 경우 가장 높은 학술지 등급으로 간주하되, 단독저자와 공동저자의 상대적 가중치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술 및 전공과 관련 없는 기타 출판물은 제외하였다.

전반적으로 장기간 자료를 통한 분석은 설명변수가 커짐에 따라 추정구간이 확대되는 통계적 위험이 있어 분석과정에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우선 전수조사의 자체자료를 서로 비교해서 각 연도별 수치가 생략되지 않고 총계가 일치하는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였다. 또한 연구자 통계에서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학회의 자료가 동일한 원칙에 의함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약간 있었으나, 정부통계를 우선 채택하였다. 앞에서 언급 못한 변수에 관한 추가정보 조사는 전국 대학본부 및 행정학 학부와 학과의 협조를 통해 얻어내었다.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전국 대학 행정학 연구자의 모집단의 규모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총 1,74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상의 자료로 수집된 각 측정치는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이용한 최근 10년 간 연도별 시계열회귀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상의 자료로 이루어진 분석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

차원(변수)	변수(성격)	변수의 처리에 대한 설명
연구환경 (독립변수)	대학특성(더미)	4년제 대학이면 1, 2년제 대학이면 0
	수업부담(더미)	학부수업이면 1, 학부 및 대학원수업이면 2, 없으면 3
	봉사부담(더미)	교내보직이면 1, 교내보직 및 외부봉사직이면 2, 없으면 3
	연구비(더미)	연구비 수혜가 있으면 1, 없으면 0
	연구년(더미)	연구년 수혜가 있으면 1, 없으면 0
개인특성 (독립변수)	연령(더미)	생년월일로 30대이면 1, 40대이면 2, 50대이면 3, 60대이면 4
	직급(더미)	조교수이면 1, 부교수이면 2, 정교수이면 3, 비정규교수이면 4
	성별(더미)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학위(더미)	국내박사이면 1, 외국박사이면 0
	동기(더미)	외적유인 응답이면 1, 내적유인 응답이면 0
연구생산성 (종속변수)	연구생산성 (가중치 합계의 자연로그)	국제학술지(SSCI급)는 5점, 등재학술지(저·역서)는 4점, 등재후보학술지는 3점, 기타학술지는 2점, 교내논문집은 1점 (공저는 저자 수에 따라 1/n)

행정학 연구자의 표본범위는 대학의 정규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비정규 계약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를 포괄하였다. 현재 행정학의 전임과 비전임 교수는 신분보장과 급여의 차이만 있을 뿐 공통적으로 박사학위가 있으며, 연구와 강의의 업무도 유사하다. 전임과 비전임을 분석의 동일선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다만 시간강사는 2018년에 ‘시간강사법’ 도입과 ‘고등교육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직 대학에서 신분의 소속이 제도적으로 확실치 않아 모집단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정보(KRI)에서 신상데이터를 밝히기를 거부하였거나 입력하지 않은 경우, 전국 규모의 학회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 부재중인 연구자도 모집단에서는 불가피한 한계집단(marginal group)으로 간주되어 제외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표본집단의 특성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표본집단의 특성

앞에서 제시한 연구질문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이 처해 있는 연구환경과 개인적 배경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기 위해 행정학 연구자 표본집단의 연구환경과 개인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학 연구자 표본집단의 성별로는 남성 연구자가 1,389명(79.8%), 여성 연구자가 351명

(20.1%)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숫자가 여성의 숫자보다 약 5배 가량 많은 수치이다. 교육부(2016)와 한국연구재단(2017)의 대학연구자 통계의 전체 성비는 22.8%이다. 그러므로 행정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남성 연구자가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행정학 연구자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국내의 다른 학문에 비해 높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래에 여성박사가 증가하였고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여교수채용이 정책적으로 많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행정학에서 아직 연구자의 성별 편중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행정학 연구자 표본집단의 특성

성 별	남성	1,389명(79.8%)	연 령	30대	112명(6.4%)
	여성	351명(20.1%)		40대	454명(26.1%)
직 급	조교수	321명(20.2%)	수업부담	50대	756명(43.5%)
	부교수	354명(20.3%)		60대	418명(24.0%)
	정교수	632명(36.3%)		학부	620명(35.6%)
	비정규교수	433명(24.9%)		학부+대학원	832명(47.8%)
학 위	국내박사	814명(46.8%)	봉사부담	없다	288명(16.6%)
	외국박사	926명(53.2%)		교내	940명(54.0%)
등 기	외부	752명(43.2%)	연구비	교내+외부	469명(27.0%)
	내부	988명(56.8%)		없음	331명(19.0%)
연구년	수혜	605명(34.8%)	연구비	수혜	1,226명(70.5%)
	미수혜	1,135명(65.2%)		미수혜	514명(29.5%)
대학특성	2년제	423명(24.3%)	합계	1,740명(100.0%)	
	4년제	1,317명(75.7%)			

둘째, 행정학 연구자 표본집단의 평균 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12명(6.4%), 40대가 454명(26.1%), 50대가 756명(43.5%), 60대가 418명(24.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자 평균연령이 48.3세(교육부, 2016; 한국연구재단, 2017)인 것과 비교하면, 행정학은 약 4.5세 정도가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나는 행정학 연구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대학들이 교수나 연구자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상당수 대학이 신규임용 시에 젊은 신진연구자 보다는 중견의 다소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을 개연성이다. 이것은 곧 신규로 행정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적어도 40대 나이가 되어야 대학에 직업적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잠정적으로 시사한다.

셋째, 행정학 연구자 표본집단에서 나타난 연구자의 직급은 조교수가 321명(20.2%), 부교수가 354명(20.3%), 정교수가 632명(36.3%), 비정규교수가 433명(24.9%) 등이었다. 정규직 교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교수 및 부교수보다 정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정규교수의 비율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조교수와 부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교수의 비중이 높은 것은 대학의 고령화를 의미한다. 이는 앞서 논의된 연구자의 평균연

령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다수의 정교수는 정년퇴임으로 미래에 빠져나갈 연구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구자의 고령화와 직급의 편중은 일시적인 연구자의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넷째, 행정학 연구자 표본집단에서 연구자의 학위는 국내박사가 814명(46.8%), 외국박사가 926명(5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에 근무하는 행정학 연구자는 국내박사 출신보다는 외국박사 출신이 비중이 약간 더 높았다. 참고로 국내박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외국박사는 구미권, 아시아권(일본, 중국), 유럽권(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순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행정학이 미국에서 파생된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박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비정상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지역적 편중이 국내보다 외국박사 연구자가 많은 것은 장기적으로 행정학의 한국화와 토착화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방증한다. 또한 행정학에서 국내 대학원 교육의 여건이나 질적 우수성이 외국보다 높지 않을 개연성, 대학이나 연구자 개인의 해외 선호현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이 결과에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행정학 연구자 표본집단 연구동기는 자기만족 및 효능감, 학문적 성취감, 주위의 인정 등 내적 유인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998명(56.8%)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 승진, 보수 등의 외적 유인을 더 선호하는 응답자 752명(43.2%)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행정학 연구자는 순수 학문적 동기에 의한 연구나 자신의 심리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연구동기의 선택 상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는 않다. 다만 외적 유인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채용, 승진, 보수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교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교수 중에서는 조교수나 젊은 연구자들이 외적 유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섯째, 행정학 연구자 표본집단에서 각 개인이 소속된 대학특성을 살펴보면 2년제가 432명(24.3%), 4년제가 1,317명(75.7%)으로 나타났다. 2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이면서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라고 판단해 보면, 4년제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과연 대학이 연구와 강의 중에서 현재 어디에 정책적인 역점을 두었느냐 하는 것은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대학에서 연구와 수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도 증명되어 있다. 좋은 연구자는 유능한 고등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행정학은 4년제 종합대학의 연구자가 많다는 점으로 볼 때, 연구생산성에 긍정적 환경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일곱째, 연구자에 대한 수업부담의 경우에는 학부수업을 맡는다는 비율이 620명(35.6%), 학부와 대학원수업을 모두 맡는다는 비율이 832명(47.8%), 강의가 없다는 비율이 288명(16.6%)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행정학 연구자들은 대학에서 수업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학 연구자가 주로 교수 직분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학기 당 평균 9학점 이상의 책임시수를 맡기 때문에 풀이된다. 물론 정규직 교수가 아닌 비정규 교수에서 연구전담이나 일부 산학협력을 하는 인력들은 수업부담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다수의 행정학 연구자는 전공과 대학원 과목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수업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여덟째, 행정학 연구자 표본집단에서 연구자에 대한 봉사부담은 대학의 교내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940명(54.0%), 교내와 외부보직을 모두 맡고 있는 경우가 469명(27.0%), 봉사의 부담이 없는 경우가 331명(19.0%)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보직 및 봉사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연구자가 표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의 교내 보직이나 외부의 학회나 학술단체,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한 봉사부담으로 인해 연구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정케 하였다. 연구자의 봉사나 잡무는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시간을 줄이도록 만든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시간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봉사부담은 적을수록 연구생산성에 좋다는 의견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행정학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수혜를 하였거나 수혜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26명(70.5%)으로 나타나, 그렇지 못한 비율 514명(29.5%)보다 월등히 높았다. 즉 상당수의 행정학 연구자는 최근 대학이나 외부에서 연구비를 수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행정학 연구자들이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해석을 하기보다는 연구비 수주의 출처를 따져보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정규 교수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정규직 교수의 경우에는 교내 연구비의 비중이 외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연구비 수주가 어려운 교수들이 교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곳도 있다. 또한 인문사회분야는 자연과학과 이공계보다 연구비 액수가 적다. 이는 연구비 수혜가 실질적으로 연구생산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게 하지만, 절대적 수치만 놓고 보면 수혜 비중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년 수혜에 있어 최근 10년 동안 연구년 혹은 안식년을 아직 지내지 않았거나 신청을 못한 사람은 1,135명(65.2%)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구년 혹은 안식년을 1회 이상 신청하여 수혜한 사람은 605명(3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년 수혜는 비정규 교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만, 이를 감안한 정규직 교수집단 중에서도 조교수와 부교수의 경우에 연구년을 수혜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고 부교수 이상의 신분을 가진 교수도 연구년을 보내지 않은 교수가 제법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행정학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년 제도의 활성화가 아직 대학에서 정착되지 못한 이유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각 개인의 신상문제나 연구년을 수혜하는 행위에 대한 교수사회의 기존 관행과 문화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한국 행정학 연구자에 대한 연구환경과 개인특성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대체적인 경향성으로 보면, 한국의 행정학 연구자는 연령과 직급이 높은 편이고, 남성과 외국박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내적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다수가 4년제 종합대학에 소속되어 학부와 대학원 수업의 부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내보직이나 외부봉사의 부담도 안고 있다. 연구비를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연구년을 지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요 특성들이 행정학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생산성의 수준

이제 앞의 연구목적 중에서 행정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의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최근 10년 동안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수준을 개인특성의 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제시된다. 먼저 <표 3>에서 산술평균은 대상연도의 단순 개별연구실적 수의 합계를 연도별 연구실적의 케이스로 나눈 결과이다. 반면에 가중평균은 개별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제학술지(SSCI 포함) 및 저서 5점, 등재학술지 4점, 등재후보학술지 3점, 기타학술지 2점, 교내논문집 1점을 부여한 후 연도별 연구실적의 케이스로 나눈 결과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최근 10년 간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은 연간 1인당 평균 1.37편(가중평균 2.68편)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구생산성은 연구실적물을 기준으로 개인별 가중치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고, 현재 행정학 연구자의 평균 연구생산성을 정확히 대변한다고 보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집계하는 전체 학문분야의 연구생산성에 비해서는 행정학의 연구생산성 평균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2016)와 한국연구재단(2017)의 자료에 따르면, 행정학 분야에서 전체 연구자의 학술지 평균 게재 편수는 연평균 1.25편으로 집계하고 있었다. 연구업적의 수준별로 보면, SSCI급 국제학술지 0.41편, 등재(후보)지 1.02편, 기타학술지 0.29편이었고, 저서는 1인당 0.39권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둘째, 연도별로는 분석기간인 2007년부터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의 연구생산성이 제일 높았다. 즉 과거에서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생산성이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행정학 연구자들이 과거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많이 발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외부에 발표할 수 있는 학술지의 숫자가 증가했을 개연성, 대학과 정부의 연구장려나 인센티브들도 이러한 연구생산성의 증가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학 연구자 연령별로는 40대의 연구생산성이 평균 1.41편(가중평균 2.30편)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50대의 연구생산성이 평균 1.24편(가중평균 2.08편), 30대의 연구생산성이 평균 0.88편(가중평균 1.79편), 60대의 연구생산성이 평균 0.49편(가중평균 0.87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학에서 30대 연구자에서 출발하여 40대에 연구생산성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50대 이후부터는 쇠퇴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행정학 연구자의 연령과 연구생산성은 앞의 이론적 가설에서 반비례(inverse proportion type), 비례(direct proportion type), 반원형(semicircle type), 말안장형(saddle type)을 상정하였다(Chen, et. al, 2015; Brew, et. al, 2016). 그런데 <표 3>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일단 연구자의 연령과 연구생산성이 30대에서 증가하여 40대에 정점을 찍고, 50대부터 감소해 가는 반원형(semicircle type) 가설과 가장 비슷함을 암시하고 있다.

〈표 3〉 행정학 연구자의 개인특성별 연구생산성 수준(단위: 편)

연도	항목	연령				직급				성별		학위	
		30대	40대	50대	60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비정규	남성	여성	국내	외국
2007	산술평균	0.75	1.33	1.15	0.43	1.35	1.28	0.53	1.02	1.49	1.20	1.09	0.81
	가중평균	1.64	2.01	1.87	0.76	2.21	3.07	1.32	1.90	2.31	2.54	2.25	2.02
2008	산술평균	0.79	1.38	1.16	0.44	1.37	1.20	0.62	1.05	1.52	1.21	1.14	0.89
	가중평균	1.75	2.10	1.90	0.78	2.58	3.19	1.48	1.94	2.45	2.60	2.40	2.45
2009	산술평균	0.77	1.39	1.11	0.42	1.44	1.24	0.72	1.01	1.54	1.24	1.26	0.97
	가중평균	1.69	2.12	1.98	0.72	2.66	3.22	2.28	1.88	3.07	2.65	2.63	2.84
2010	산술평균	0.80	1.42	1.10	0.45	1.48	1.46	0.87	1.15	1.61	1.31	1.43	1.14
	가중평균	1.75	2.20	2.00	0.80	3.27	3.51	2.51	2.02	3.18	2.83	2.65	3.02
2011	산술평균	0.81	1.39	1.12	0.46	1.60	1.52	0.90	1.19	1.72	1.22	1.44	1.22
	가중평균	1.77	2.11	2.01	0.82	3.21	3.45	2.95	2.12	3.32	3.04	3.11	2.98
2012	산술평균	0.80	1.44	1.19	0.45	1.61	1.47	0.96	1.18	1.67	1.42	1.67	1.34
	가중평균	1.75	2.26	2.08	0.81	3.55	3.55	3.01	2.09	3.16	3.10	3.01	3.08
2013	산술평균	0.84	1.47	1.20	0.40	1.76	1.53	1.04	1.20	1.83	1.58	1.84	1.41
	가중평균	1.82	2.31	2.09	0.72	3.68	3.78	2.61	2.12	3.51	3.02	3.33	3.22
2014	산술평균	0.85	1.48	1.25	0.49	1.73	1.54	1.01	1.22	1.83	1.59	1.82	1.40
	가중평균	1.86	2.32	2.12	0.90	3.50	3.81	2.55	2.30	3.53	3.09	3.19	3.20
2015	산술평균	0.89	1.51	1.30	0.51	1.77	1.54	1.03	1.23	1.86	1.58	1.88	1.44
	가중평균	1.90	2.45	2.20	0.94	3.60	3.80	2.60	2.35	3.60	3.02	3.52	3.31
2016	산술평균	0.93	1.50	1.31	0.53	1.78	1.55	1.05	1.27	1.87	1.61	1.92	1.43
	가중평균	1.92	2.43	2.21	0.97	3.74	3.83	2.69	2.39	3.69	3.11	3.56	3.29
합계	산술평균	0.88	1.41	1.24	0.49	1.52	1.41	0.92	1.13	1.68	1.38	1.61	1.29
	가중평균	1.89	2.30	2.08	0.87	3.67	3.60	1.98	2.27	3.26	3.01	3.02	2.96

넷째, 행정학 연구자의 직급별로는 조교수의 연구생산성이 평균 1.52편(가중평균 3.67편)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부교수가 평균 1.41편(가중평균 3.60편), 비정규교수가 평균 1.13편(가중평균 2.27편), 정교수가 평균 0.92편(가중평균 1.98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에서 조교수와 부교수의 연구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단 앞의 연령에 따른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교수와 부교수가 상대적으로 젊은 경우가 많고, 연구자로서 전문성과 의욕이 왕성한 시기인 이유로 사료된다. 반면에 가장 높은 직급인 정교수가 연구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정교수는 절대 연령이 높고, 의욕이나 연구의 각종 동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행정학 연구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연구생산성이 평균 1.68편(가중평균 3.26편)이었고, 여성은 평균 1.38편(가중평균 3.01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연구자의 연구생산성 평균이 여성연구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앞선 개인특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표본집단에서 남성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숫자가 적어 표본의 양적 차이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성별에 있어서 산술평균과 질적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은 해석이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기존 해외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구생산성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기는 하였다(Rawls, 2015; Holosko & Barner, 2016; Ramkumar, Savithri &

Narayanasamy, 2016). 이 연구에서의 성별 차이도 이와 비슷한 결과 정도로 풀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행정학 연구자의 학위별로는 국내박사가 평균 1.61편(가중평균 3.02편)으로, 외국박사의 평균 1.29편(가중평균 2.96편)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보면 외국박사보다 국내박사가 일단 연구생산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10년의 분석기간이지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외국박사의 연구생산성 변화 폭보다 국내박사의 연구생산성 변화 폭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내박사의 연구생산성 수준이 우수하고, 행정학의 한국화나 토착화라는 학문적 규범에서는 일단 긍정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외국박사의 연구역량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도 분명 다른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단적으로 국내박사와 외국박사의 연구생산성을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앞선 행정학 연구자의 표본집단에서 학위별로 외국박사가 약간 더 많았고, 산술이 아닌 가중평균으로 보면 연구생산성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박사와 외국박사의 연구생산성에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가정해도, 이는 고무적인 발견일 수 있다.

3. 연구생산성의 영향요인

서두의 세 번째 연구목적은 행정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는 연구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앞선 연구생산성의 수준에서 알아본 바로는 연구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연구생산성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제법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행정학 연구자가 가진 연구생산성의 차이가 실제 이론적인 논의에서 상정된 영향변수 때문인가의 여부는 인과관계 분석이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앞의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바에 근거하여 종속변수를 연구생산성으로 규정하고, 그 대리변수로 앞선 연구실적물의 가중평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연구환경과 개인특성에 연관된 10가지 변수로 처리하였다. 연구생산성은 연구실적물을 통한 대리변수로서의 성격이 강해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인과관계의 대략적인 경향성은 충분히 시사하며 변수들의 상대적 유의성도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이 제시된다.

먼저 연구환경에서는 대학특성, 수업부담, 봉사부담, 연구비, 연구년 등의 5가지 변수를 투입하여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값을 추정하였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 값)를 살펴보면, 일정한 특성이 드러난다. 즉 연구생산성에 대하여 연구비($\beta = .150$)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학특성($\beta = .115$), 봉사부담($\beta = -.107$)의 순으로 연구생산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머지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연구비 지원은 연구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그

룹보다 지원 받은 그룹이 다수였지만, 분명 연구비를 받은 그룹이 연구생산성이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연구비 의존도가 높은 행정학 연구현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연구비를 받기 위한 경쟁성이나 경제적 수월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일단 지원 받은 연구비는 연구생산성 향상에 보다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생각된다. 그리고 행정학에서 연구자의 연구비 수주가 논문이나 저·역서 등의 생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은 행정학 연구자로 하여금 경제적 수월성을 담보하게 만들어 새로운 학문적 자료를 접하게 도와주며, 연구에 투자하는 절대시간을 부여하여 연구의욕을 전반적으로 고취시킨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었다(한동성·장덕희·한승환·양정모, 2008; 한승환·권기석, 2009; Chen, et. al, 2015; Brew, et. al, 2016).

〈표 4〉 연구환경과 개인특성이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TOL	VIF	
모형 (상수)	-5.186	4.154		-1.249	.219			
연구환경	대학특성	.219	.082	.115	2.677	.009	.216	4.628
	수업부담	-7.451E-02	.095	-.029	-.781	.437	.269	3.719
	봉사부담	-.135	.054	-.107	-2.491	.015	.242	4.127
	연구비	.132	.046	.150	2.849	.005	.138	7.240
	연구년	4.905E-02	.039	.044	1.259	.211	.312	3.208
개인특성	연령	-.163	.033	-.187	-4.897	.000	.253	3.952
	직급	-5.621E-02	.060	-.024	-.937	.351	.584	1.712
	성별	-4.525E-02	.039	-.041	-1.164	.248	.303	3.300
	학위	.119	.047	.135	2.538	.013	.131	7.657
	동기	-6.570E-02	.091	-.025	-.722	.472	.311	3.213
R ² = .472		Adjusted R ² = .436		F = 125.680				

둘째, 연구비와 반대로 봉사부담은 연구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론적으로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예측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대학에 연구자로 있으면 일정부분의 보직이나 학계에 대한 봉사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봉사가 연구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실은 실제 대학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판단된다. 즉 연구자의 봉사에 대해서 대학은 대부분 강의시간 경감이나 약간의 수당 등의 미약한 보상만을 주고 있으며, 외부 학회나 단체의 경우는 이마저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연구자에 대한 봉사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연구생산성에 대한 방해요인이 될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셋째, 대학특성도 일정부분 연구생산성과 유의적인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특성이 2년제 대학인 곳보다 4년제 대학인 곳이 연구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되었다. 통상 2년제 전문대학은 강의중심대학의 성격이 짙고, 4년제 종합대학은 상대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의 성격을 갖는다. 중요한 사실은 연구자가 4년제 연구중심 대학에 소속될수록 연구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2년제 대학의 높은 강의부담과 4년제 대학의 연구를 중요시하는 분위기와도 분명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개인특성에 속하는 독립변수 중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 값)를 보면 연구자의 연령($\beta=-.187$)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위($\beta=.135$)가 연구생산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연구자 개인의 연령은 연구생산성과 밀접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부호로 판단하자면, 낮은 연령의 연구자가 연구생산성이 높다는 판단이 가능하였다.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구생산성이 줄어드는 부(-)의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행정학에서 연구자의 연령과 연구생산성은 적어도 비례관계는 아님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행정학에서의 학위도 연구생산성과 많은 연관이 있었는데, 앞의 연구생산성 수준 분석에서 국내박사가 외국박사보다 연구생산성이 더 높았다. 학위와 연구생산성에 관한 이런 분석결과는 행정학에서 적어도 국내박사보다 외국박사가 연구역량이 낮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물론 여기에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기에 확대된 해석은 유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아가 전반적으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도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제기한 해석에 대해서는 학계의 보다 심층적인 관심과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당초에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생산성의 의미와 현재의 상황을 시론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수 연구자들이 의문을 가졌던 연구활동 수준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기본적으로 한국 행정학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노력의 향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계전체의 차원에서는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생산성 개념의 도입이 학문적 담론을 확산시키고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되어 대안적 처방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으로는 행정학이라는 분과학문에 국한되지만 대학의 학문적 질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연구활동 동 평가지표나 모형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과 정부에게는 행정학 분야만의 특성화된 학술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마지막 연구 목적은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향후 한국 행정학 연구풍토 및 학술진흥정책에 주는 시사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최초 설정한 연구목적에 따라 그 해답과 시사점을 찾는 방식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이들이 처해 있는 연구환경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

고 있는가? 행정학 연구자들의 개인특성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약 8:2의 비율이었고, 평균 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직급은 정교수와 비정규교수가 많았고, 조교수와 부교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위는 외국박사가 약간 많았고, 연구동기는 자기만족 및 효능감, 학문적 성취감, 주위의 인정 등 내적 유인이 많았다. 연구환경에서는 대부분 4년제 대학에 소속되어 학부와 대학원수업을 맡고 있었고, 교내와 외부에서 봉사나 보직을 맡고 있었다. 최근 10년 동안 연구비의 수혜비율 경험은 약 70%로 높았으나, 연구년 혹은 안식년을 지낸 비율은 약 34%에 그쳤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행정학 연구자는 비교적 연령과 직급이 높으며, 외국박사가 다수인 가운데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 연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비를 받은 경험이 전무한 사람과 연구년을 지내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이며, 수업부담이나 봉사부담도 높은 편이다.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 이러한 행정학 연구자의 상황에 맞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최근 10년 동안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은 산술적으로 연간 1인당 평균 1.37편이었으며, 연구실적물 등급의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은 2.68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사회분야 전체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인 1.25편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연구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은 40대였고, 직급은 조교수, 성별은 남성, 학위는 국내박사였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에게는 앞으로 연구생산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낮은 집단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행정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는 연구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연구비, 대학특성, 봉사부담, 연령, 학위 등 총 5가지의 요인이었다. 이는 연구생산성이 높은 경우가 연구비를 받은 연구자, 4년제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 대학의 보직이나 외부의 봉사부담이 덜한 연구자, 연령이 낮은 연구자, 국내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자임을 말해 주었다. 환언하자면 연구생산성을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소들은 연구비가 없거나, 2년제 전문대학에서 속해있거나, 보직이나 봉사부담이 높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연구자의 연령이나 개인특성은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연구환경은 정부와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학술진흥정책 수립 시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계에서 연구역량과 연구생산성에 관한 기존의 관념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전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제안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생산성 모델의 논리와 그 분석결과를 아직 행정학 전체로까지 일반화시켜 단정하는 데는 이른 감이 있다. 연구자들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이 연구의 실증이 최선의 진단이자 해답이라고 단언하기도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 하지만 향후에는 새로운 연구에 대한 담론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서, 행정학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과 그 모형의 타당성이 계속 검증되어 가기를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가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행정학 현직 연구자들의 모집단 표본에 대해 퇴직교수, 전문연구원, 시간강사, 학문후속세대까지를 고려하고, 나머지 대학 외부의 한계집단(marginal group)을 포함한 전수조사(complete

survey)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생산성의 대리변수로 연구결과물을 이용한 약점을 증점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즉 논문발표 학술지들의 질적 수준을 보다 더 타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개별적인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및 분과학문의 정체성과 이를 통한 분과학문 영역간, 사회과학 전체의 연구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는 모형도 개발해야 한다. 현재보다 일반화 가능성과 타당성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정부와 대학의 학술진흥정책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행정학계의 발전과 지식의 진보를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해수.(2009). 한국행정학의 학문후속세대 교육의 위기구조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43(1): 299-320.
- 김태일·남궁근.(2003). 학술연구비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연구비지원유형과 연구결과물수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2): 163-187.
- 우양호·고경동(2015). 행정학 분야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과 그 영향요인: 개인적 특성인가? 환경적 요인인가?. 「행정논총」, 53(2): 345-380.
- 한동성·장덕희·한승환·양정모.(2008).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대학 연구자의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42(4): 265-290.
- 한승환·권기석.(2009). 대학의 특성 및 연구비 구조와 산학 성과와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의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3): 307-325.
- 교육부.(2016). 전국 대학 교수연구업적통계 및 대학교원 현황(대학정책과 내부자료).
- 한국연구재단.(2017). 한국연구자정보(KRI)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데이터.
-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2017). 2016 회원명부 및 주소록.
- Abouchdid, K. and Abdelnour, G.(2015).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in Six Arab Countrie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61(5): 673-690.
- Aithal, P. S.(2016). How to Increase Research Productivity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SIM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and Modern Education*. 1(1): 447-458.
- Alrahlah, A. A.(2016). The Impact of Motivational Factors on Research Productivity of Dental Faculty Members: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Taibah University Medical Sciences*. 11(5): 448-455.
- Bland, C. J., Center, B. A., Finstad, D. A., Risbey, K. R. and Staples, J.(2006). The Impact of Appointment Type on the Productivity and Commitment of Full-Time Faculty in Research and Doctoral Institu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7(1): 89-123.
- Brew, A., Boud, D., Namgung, S. U., Lucas, L. and Crawford, K.(2016). Research Productivity

- and Academics Conceptions of Research. *Higher Education*. 71(5): 681-697.
- Chen, Z., Gong, C., Lin, L., Xu, S., Zhang, M. and Zhou, X.(2015). Assessing Junior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in the IS Field: Recommendations for Promotion and Tenure Standards for Asian School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36(19): 357-368.
- Conley, J. P., Crucini, M. J., Driskill, R. A. and Onder, A. S.(2013). The Effects of Publication Lags on Life?: Cycle Research Productivity in Economics. *Economic Inquiry*. 51(2): 1251-1276.
- Crosta, P. M. and Packman, I. G.(2005). Faculty Productivity in Supervising Doctoral Student's Dissertations at Cornell Universit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4(1): 55-65.
- Dean, D. L., Lowry, P. B. and Humphreys, S.(2010). Profiling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Tenured Information Systems Faculty at US institutions. *MIS Quarterly*. 35(1): 1-15.
- Eloy, J. A., Svider, P. F., Cherla, D. V., Diaz, L., Kovalerchik, O., Mauro, K. M. and Chandrasekhar, S. S.(2013). Gender Disparities in Research Productivity Among 9952 Academic Physicians. *The Laryngoscope*. 123(8): 1865-1875.
- Hardre, P. L., Beesley, A. D., Miller, R. L. and Pace, T. M.(2011). Faculty Motivation to do Research: Across Disciplines in Research-Extensive Universities. *Journal of the Professoriate*. 5(1): 35-69.
- Harle, C. A., Vest, J. R. and Menachemi, N.(2016). Using Bibliometric Big Data to Analyze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i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Journal of Health Administration Education*. 33(2): 285-293.
- Hesli, V. L. and Lee, J. M.(2011).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Why Do Some of Our Colleagues Publish More than Other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4(2): 393-408.
- Hollister, C. V. and Schroeder, R.(2015). The Impact of Library Support on Education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An Exploratory Study. *Behavioral & Social Sciences Librarian*. 34(3): 97-115.
- Holosko, M. J. and Barner, J. R.(2016). Research Productivity in Top-Ranked Schools in Psychology and Social Work Research Cultures Do Matter.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6(3): 278-285.
- Hunter, L. and Leahey, E.(2010). Parenting and Research Productivity: New Evidence and Methods. *Social Studies of Science*. 40(3): 433-451.
- Jung, J.(2012).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in Hong Kong across Academic Discipline. *Higher Education Studies*. 2(4): 1-13.
- Leisyte, L.(2016). New Public Management and Research Productivity?: A Precarious State of Affairs of Academic Work in the Netherland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1(5): 828-846.
- Long, R., Crawford, A., White, M. and Davis, K.(2009). Determinants of Faculty Research

- Productivity in Information System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Academic Origin and Academic Affiliation. *Scientometrics*. 78(2): 231-260.
- Mamiseishvili, K. and Rosser, V. J.(2010). International and Citizen Faculty in the United States: An Examination of Their Productivity at Research Universiti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1(1): 88-107.
- Nurhudatiana, A. and Anggraeni, A.(2015). Decision Tree Modeling for Predicting Rresearch Productivity of University Faculty Member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and Software Engineering(ICoDSE): 70-75.
- Perry, R., Clifton, R., Menec, V., Struthers, C. W. and Menges, R.(2000). Faculty in Transition: A Longitudinal Analysis of Perceived Control and Type of Institution in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Newly Hired Facult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1(2): 165-194.
- Ramkumar, S., Savithri, S. R. and Narayanasamy, N.(2016). Conceptual Framework for Measurement of Research Productivity in Communication Sciences and Its Disorders in Indian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ciences and Research*. 6(4): 386-404.
- Rawls, M. M.(2015). Looking for Links: How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Correlates with Library Investment and Why Electronic Library Materials Matter Most.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10(2): 34-44.
- Roy, K. M., Roberts, Michael C. and Stewart, P.(2006). Research Productivity and Academic Lineage in Clinical Psychology: Who is Training the Faculty to do Researc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7): 893-905.
- Sax, L. J., Hagedorn, L. S., Arredondo, M. and Dicrisi, F. A.(2002).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Exploring the Role of Gender and Family-Related Factor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3(4): 423-446.
- Schiele, J. H.(1991). Publication Productivity of African-American Social Work Faculty.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7(2): 125-134.
- Smeltzer, S. C., Cantrell, M. A., Sharts-Hopko, N. C., Heverly, M. A., Jenkinson, A. and Nthenge, S.(2016).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eaching Demands on Research Productivity among Doctoral Nursing Program Facult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2(3): 180-192.
- Streuly, C. A. and Maranto, C. L.(1994). Accounting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and Citation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9(2): 247-259.
- Svider, P. F., Mauro, K. M., Sanghvi, S., Setzen, M., Baredes, S. and Eloy, J. A.(2013). Is NIH Funding Predictive of Greater Research Productivity and Impact among Academic Otolaryngologists?. *The Laryngoscope*. 123(1): 118-122.
- Tower, G., Plummer, J. and Ridgewell, B.(2011). A Multidisciplinary Study of Gender-based

- Research Productivity in the Worlds Best Journals. *Journal of Diversity Management*. 2(4): 23-32.
- Walker, K. B., Fleishman, G. M. and Stephenson, T.(2013). Developing a Written Research Productivity Policy for a Department of Accounting: A Case Study. *Academy of Educational Leadership Journal*. 17(3): 117-139.
- Webber, K. L.(2012). Research Productivity of Foreign and US-born Faculty: Differences by Time on Task. *Higher Education*. 64(5): 709-729.
- Wichian, S. N., Wongwanich, S. and Bowarnkitiwong, S.(2009). Factors Affecting Research Productivity of Faculty Members in Government Universities: Lisrel and Neural Network Analyses. *Kasetsart Journal*. 12(39): 67-78.

우양호(禹良昊):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공공서비스 관리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 2009)하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HK)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지방정부학회 총무위원장,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감사를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학, 공공관리, 도시 및 지방행정, 해양행정, 글로벌지역연구 등이다(woo8425@hanmail.net).

홍미영(洪美英):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관료제의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 연구, 2005)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및 성평등연구부장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인적자원관리, 여성정책, 행정학일반 등이다(lamer227@daum.net).

Abstract

Effects of Environment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Research Productivity: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ers

Woo, Yang-Ho

Hong, Me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effects of environment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research productivity based o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er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lete survey for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ers and utilizing the evidence from 1,740 respondents. The empirical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 average age was 52.8 and most of academic researchers were male and full time professor. Also, most of doctoral degrees were internationally obtained. Second, Research environment showed that teaching and service burdens for researchers were high. Most of academic professors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official position of academic affairs or research society. But, amount of research funds and frequency of sabbatical leaves were low. Third, Determinants of research productivit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ers were research funds, research-based university, service burdens, age, doctoral degrees. Based on these significant findings, detail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for high research productivity in the field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Research Productivity, Research Environme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Public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